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5.(목) 06:00 (목요일 석간) 배포 2026. 11. 4.(수)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한자리에,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한다

- 제22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 참가, 동북아시아 환경질 개선 논의
- 해양 생태계 통합 관리 및 대기질 개선 등 실질적 협력 방안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영우)은 11월 5일부터 이틀간 중국 광저우 생태환경과학센터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환경 현안에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로 황사, 초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협력의 토대를 제공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만(灣) 지역 및 하천 유역의 통합 생태환경관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해를 공유하는 한중 간 해양 생태계는 물론 한중일 간 하천·호소·만의 통합 관리를 위한 연구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둘째 날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미량유해 화학물질 등 신규 오염물질의 위험평가 및 관리 우선순위 설정, 위해성 평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비롯해 시 베이두(XI Beidou)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오시마 요시토(OSHIMA Yoshito)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등 3국의 연구진과 관계자 약 40명이 자리를 함께한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회의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등 3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협력을 공고히 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3국의 연구역량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협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의 환경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2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 일정.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황나경 (032-560-7061)
		담당자	연구관	임윤성 (032-560-7073)
		담당자	주무관	김상준 (032-560-70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제22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 일정**

1일차 국제워크숍

날짜	내용	비고
11.5.(목)	**< 국제워크숍 >**	
	▪ (주제) 만지역 및 하천 유역 통합 생태관리 ▪ (내용) 각국의 연구현황 발표 및 토론	한·중·일
	< 기관장 논의 >	
	▪ 연구진 사전 논의(안건 : 만 지형 및 하천유역의 환경보존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상생방안 모색) - 광동 생태환경과학센터 및 주요 연구 소개, 한·일 연구범위 및 유사 사례 비교	한·중·일
	▪ 기관장 논의(안건에 대한 종합논의)	한·중·일
	< 연구시설 방문 >	
	▪ 광저우-홍콩-마카오 생태환경과학센터	

2일차 본회의

날짜	내용	비고
11.6.(금)	**< 오프닝 세션 >**	
	▪ 개회사 및 기조연설	한·중·일
	< 세션1 : TPM21 이후 연구경과 발표 >	
	▪ 각국 TPM21 이후 연구경과 발표	한·중·일
	< 세션2 : 중점협력 분야(PRAs) 연구경과 발표 >	
	▪ 4대 중점협력분야(물환경, 기후, 대기, 보건)	한·중·일
	▪ 세션요약	
	< 세션3 :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 신규 오염물질 관리 전략 및 정책	한·중·일
	< 세션4 : 클로징 세션 >	
	▪ 마무리 말씀 및 폐회사	한·중·일
	< 공동합의문 서명식 >	
	▪ TPM 22 서명식	한·중·일
	< 연구시설 방문 >	
	▪ 캔톤타워	

※ 현장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